

특허 기술이전 상담회 6월 3-4일 개최

특허청은 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자와 특허기술 판매를 희망하는 공급자간 특허기술 거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<2008 특허 기술이전 상담회>를 6월 3-4일 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다.

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2월부터 4월까지 수요기업 47사로부터 총 108개 수요기술을 확보하고, 59개 연구기관의 507개 특허기술을 발굴했다.

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기술수요자는 중소기업이 93%로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, 특허기술 판매를 희망하는 기술판매자는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이 53%로 기술마케팅·사업화(Business) 영역과 기술개발(R&D)의 영역이 구분되는 특징을 보였다.

2008년에는 수요자가 원하는 정확한 수요기술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이전 전문가의 사전 인터뷰를 실시해 구체적으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수요자 및 공급자간 보다 내실있는 상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또 행사에는 특허 기술이전 컨퍼런스, 특허기술경매, 특허기술 투자유치설명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열릴 예정으로 특허 기술도입 및 이전에 관심있는 사람은 사전신청을 통하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.

특히, 2007년부터 시작된 특허 기술경매 행사는 일반적인 공개경쟁 경매방식(입찰형식)에 따라 행사당일 현장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.

특허 기술이전 컨퍼런스에서는 기술이전과 관련된 정책자금, 세무법률, 기술료 책정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.

<화학저널 2008/05/29>